

6·25전쟁기 미국의 한국군 증강정책과 그 특징*

李 美 淑**

1. 문제 제기
2. 미국의 10개 사단 증강론
3. 미국의 20개 사단 증강정책과 국군 증강
4. 국군 증강의 특징과 한계
5. 맺 음 말

1. 문제 제기

6·25전쟁 발발 직전 약 10만 명이던 한국군은 휴전 후 곧 70여만 명에 이르는 대군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한국군의 증강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군사적 요구와 함께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의 결과였다. 전쟁 중 병력 증강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시 한국정부가 군의

* 본고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휴전 전후 한국군 증강 과정 연구」(2006. 8)를 축약 정리한 것임.

** 안산 시곡중학교 교사

성장을 주도하거나 책임질 만한 경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고, 게다가 1957년부터 미국이 한국군의 감축을 요구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하에서의 병력은 지나치게 팽창되었다고 할 수 있다.¹⁾ 이 문제는 2005년 9월 13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현재의 군 병력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첨단 감시·타격 전력을 보장하는 '군구조 개혁안'을 발표한 것처럼 오늘날의 군 개혁과도 연결된다.

전후 시기 군 증강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사병·장교·국민방위군 등 병력 충원과정과 교육훈련이 자세히 밝혀져 있고, 미 군사고문단이 국군 증강과 교육훈련에 미친 영향, 국군증강 과정에서 미 제8군 사령관 밴 플리트(James A. Van Fleet)의 주도적인 역할, 국방비 분석을 통해 군 증강에 따른 비용부담의 실상 등도 다루어졌다. 북한의 연구 성과로는 남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를 비판하면서 전후 계속된 미군 주둔의 부당성과 철수문제를 다룬 글이 있다.²⁾ 그 밖에 1957년 중반부터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국군 감축과 1960년대 초 미국과 국내에서 논의되었던 국군과 주한미군의 감축논의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³⁾

1)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한울아카데미, 2003, 79면.

2) 박동찬, 「한국전쟁기 한국군의 증강문제와 군사교육의 강화」,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신용욱, 「국방비 분석으로 본 대총자금 및 미국 대한원조의 성격」, 『한국사학보』, 1998. 3; 이철순, 「이승만정권기 미국의 대한정책 연구(1948-1960)」,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남정욱, 「국민방위군」,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군사편찬연구소, 2001; 박일송, 「전쟁중 국군의 충원과 교육훈련」,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군사편찬연구소, 2002; 나종남, 「한국전쟁 중 한국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53」, 『군사』 63, 2007. 6; 폴 브레이크, 『위대한 장군 밴 플리트』, 육군본부, 2001; 엄국현, 『조국통일과 미군철수』, 평양출판사, 2005; Kim Dong-Soo, "U.S.-South Korea Relations in 1953-1954: A Study of Patron Client State Relationship", the Univ. of Connecticut, Ph.D., 1985; Robert K. Sawyer, *KMAG in Peace and War*,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A, 1985; Allan R Millett, "Gen. James A. Van Fleet and the Rebirth of the ROK, 1951-1953",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시 한·미 군사적 역할과 주변국의 대응」, 2003. 6; Bryan R. Gibby, "Fighting in Korean: the American Advisory Mission 1946-1953", the Ohio State University, Ph.D., 2004.

3) 차상철, 「아이젠하워, 이승만 그리고 1950년대의 한미관계」, 『미국사연구』 13, 2001. 5;

본고에서는 최근의 군 개혁 방안과 관련하여 국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군의 팽창시기인 휴전 전후로 되돌아가 국군의 증강과정에 주목하였다. 이 때 맥아더와 리지웨이가 주장한 10개 사단 증강론의 의미와 이후 20개 사단 증강으로 바뀐 배경,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군 증강과의 상관성, 국군 증강이 양적 팽창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특징과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2. 미국의 10개 사단 증강론

북한군의 기습남침 이후, 국군은 후퇴를 거듭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병력 재정비와 보충을 통해 군의 규모를 확대해 왔다. 기습을 받은 공포로 인해 그 근원인 북한을 통일하는 것만이 평화 정착의 길이라는 의식이 팽배하였기 때문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인은 미국과 자유 우방국의 원조로 전쟁을 통해 통일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⁴⁾

그러나 참전 이후 인천 상륙작전을 거쳐 북진시기까지 미군의 전략은 한국군의 병력 보충보다 미군 병력 동원에 힘을 기울였다. 미군은 이미 많은 병력을 손실했기 때문에 전투력이 떨어지는 한국군보다 미군을 대규모로 투입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결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그 후 전선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국군의 증강보다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력을 증강하려고

이혜정, 「한미동맹 기원의 재조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1, 2004. 8; 박태균, 「1950·60년대 미국의 한국군 감축론과 한국정부의 대응」,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국제지역연구』 9-3, 2000. 9; 마상윤, 「미완의 계획: 1960년대 전반기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논의」; 조진구, 「1960년대 초반의 미국의 대한정책: 한국군과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미국 정부 내 논의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47-1, 2004. 6; 홍준기, 「제2공화국의 국방정책 평가」, 『군사』 58, 2006. 4 등.

4) 홍석률, 「1950년대 남한 정치세력의 통일논리」, 『국사관논총』 70, 133-134면.

하였다.

1950년 8월초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있을 때, 주한미국 대사 무초(John J. Muccio)는 공산주의자들을 축출하고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는 수단으로서 군사적 노력에 공헌하고 있는 한국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한국군을 가능한 한 최대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주요 작전이 끝난 이후 북한 게릴라들을 진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⁵⁾

하지만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Walker)가 건의한 한국군 증강규모는 10개 사단이였다.⁶⁾ 한국군 증강에 소극적이었던 미 군부에서는 미군의 병력손실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카투사를 적극 활용했다. 1950년 8월 말 미 제7사단에 8,652명, 제1기병사단 739명, 제2사단 239명, 제24사단 949명, 제25사단 240명 등이 배치되었고 그 해 10월에는 26,021명으로 증가하였다.⁷⁾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진통일을 기대한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군사원조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지역에서의 한국정부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였으므로 국군의 증강은 이어지지 않았다.⁸⁾ 1950년 10월 중순 웨이크섬 회담에서 트루먼과 맥아더를 비롯한 한국문제 담당자들이 중국의 참전 가능성과 한반도의 전후문제를 논의했다. 이 때 전후 한국의 방위 문제는 미 공군과 해군의 지원을 받으며 미군과 같은 장비로 무장한 10개 사단 25만 명이면 한국의 치안은 물론 중국의 남하에 대해서도

5) 「무초 대사, 한국군 증강문제를 미 국무장관에게 요청」 1950.8.1, *FRUS* 1950, 511면.

6) James F. Schnabel·Robert J. Watson(채한국역), 『한국전쟁』 상, 145-157면; Robert K. Sawyer, *KMAG in Peace and War*, pp. 164-166.

7) "Personnel Problems", 19/389, pp. 11-12; Emery L. Atkins·Henry P. Griggs etc., "Utilization of Indigenous Manpower in Korea", 4 Aug. 1951, 군사편찬연구소, SN 1404, pp. 52-53.

8) 「합참의장 브래들리(Omar N. Bradley), 반격을 위한 맥아더 제안 승인」, *FRUS* 1950.9.7, 707-708면.

강력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고 합의하였고, 그 해 11월 초에 트루먼 대통령이 공식 승인했다.⁹⁾

중국군 개입 이후 미군의 철수를 반대하고 전쟁을 계속 지지하는 미국 여론에도 불구하고, 병력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1951년 1월 초 유엔군이 중국군에 밀리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25만 명을 당장 무장시켜 줄 것을 호소하였고, 3월 하순에도 재차 서한을 보내 한국에서 미군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30만 명을 추가로 무장시키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는 “미군의 생명을 구해줄 것인데 왜 한국인을 무장시키지 않는가?”라고 반문하였다.¹⁰⁾ 무초 대사도 한국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무장시켜 방어선을 지키게 하면 유엔군 지상군 병력의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¹¹⁾

그러나 중국과의 전쟁 확대를 원했던 맥아더 장군은 한국군의 낮은 전투력을 이유를 들어 어떠한 증편도 반대했다. 그는 한국군 규모로 지원 병력을 포함해 10개 사단 25만 명 정도면 적당하므로 추가적인 한국인 활용에 회의적이었다. 이에 1951년 2월경, 미 육군부는 전후 한국군의 규모에 대해 10개 사단을 기본으로 하여 지원부대를 포함, 30만 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결론을 내렸다.¹²⁾

맥아더 해임 이후, 1951년 4월 하순 이승만 대통령은 신임 유엔군 사령

9) David Curtis Skaggs and Richard P. Weinert, "American Military Assistance to the ROKA 1951-65", 군사편찬연구소, MF 1429, p. 1-14.

10)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사령관에게 1951.1.5, 『대한미국사자료집』 30, 2면, 6-7면, 15면;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1951.3.26, 『대한민국사자료집』 30, 148-149면;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사령관에게 1951.4.10, 30/175, N.A.; 해리 S. 트루먼(손세일역), 『트루먼회고록』 하, 지문각, 1968, 429면.

11) 「무초 대사, 국무장관에게 38선 복구 시도에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에 대한 보고 1951.2.12, FRUS 1951, 168면.

12) 「미 국방장관, 국무장관과 대한청년단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 협의 1951.1.19, FRUS 1951, 105-106면; FRUS 1951, 70-72면; Robert K. Sawyer, *KMAG in Peace and War*, pp. 168-169.

관 리지웨이(Matthew Ridgway)에게 중국군이 대거 한반도에 주둔한 상황에서 북진통일만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라며 10개 사단을 추가하여 20개 사단 규모로 한국군을 확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리지웨이와 미 제8군사령관 벤 플리트 역시 기존 사단조차 잘 싸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단 증설은 낭비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했다. 마침 1951년 4월 22~23일 사창리전투에서 한국군 제6사단이 중국군에 의해 포위, 붕괴되어 저항도 없이 패퇴하였고, 5월에는 국군 제3군단의 대패배로¹³⁾ 한국군 증강 문제는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한국군 리더십 제고를 위한 시도가 논의되었다.

리지웨이 사령관은 국군 제6사단의 붕괴 후인 1951년 5월 4일 대구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국군의 리더십 결여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a grave and urgent problem)라고 하면서, 이를 해결할 책임이 대통령과 한국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군이 만족할만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까지 한국군의 증강과 장비의 추가지원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증강요청에 호의적이었던 벤 플리트 사령관도 리지웨이 사령관의 권고로 합참에서 결정된 추가지원 거부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¹⁴⁾

당시 미군 분석에 의하면 1950년 8월 23일부터 1951년 2월 1일까지 한국군은 소총 38,606정, 카빈총 19,229정, 자동소총 3,580정, 로켓탄발사기(rocket launchers) 1,937대, 박격포 831문, 대포 174문, 차량 806대 등을 잃었다. 이는 10개 사단을 지원할 수 있는 양을 넘는 것으로, 한국군의 이러한 장비 손실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리더십 결여에서 비롯되었다고 미군 당국은 파악했다.¹⁵⁾

13) 임부택, 『낙동강에서 초산까지』, 그루터기, 1996, 370-375면; 최용호·김병륜, 『그때 그날』, 삼우사, 2003, 238면; "The ROK Security Forces and Mobilization Potential", 26 Apr. 1951, 163/319, National Archives(N.A.), USA.

14) 「극동군사령관이 육군부에 1951.5.5, 1/218, N.A.

15) 「극동사령부에서 육군부에게 1951.5.1, 1/218; 「극동군사령부에서 합참의장에게 1952.

이에 따라 1951년 공산군의 춘계공세 후 전선이 안정되면서 유엔군사령부에서는 한국군 장병에 대한 군사교육체계 정비에 착수했다. 교육사령부가 창설되어 군사교육기관을 감독하였고, 장교후보생의 교육기간을 연장하였다. 또한 육군사관학교와 육군대학을 설립하고 매년 수백 명씩의 장교를 미 군사학교에 유학시키는 등 군사교육을 강화하였다. 사병의 경우 병역의무 적령기에 있는 인적 자원의 동원 체계를 확립하고 훈련소를 설치했다.¹⁶⁾

휴전협상이 진전되면서, 한국군의 증강은 미군이 전후 한국에 대한 전략적 인식과 한국군의 역할을 어떻게 파악했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먼에게 휴전협정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한국군 증강을 요구하였다.¹⁷⁾

전선이 교착되자, 미국에서는 미군의 대체병력으로 한국군 증강이 고려되었다. 당시 한국전선에서 미군 규모는 1951년 7월 221,848명에서 9월에 23만여 명으로 늘어났다가, 11월부터 줄곧 22만 명을 유지하는 수준이었다.¹⁸⁾ 1951년 8월 18일, 미 합참은 전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극동군사령관에게 휴전협정 후 한국군과 북한군의 최종적인 규모와 구성, 그리고 중국군과 유엔군의 철수시기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리지웨이 장군은 휴전 후에도 적이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보여줄

때까지는 유엔군의 한국주둔이 필요하고, 새로운 공산침략이 있을 경우 유엔군 증원군이 도래할 때까지 한국군은 지연전을 수행할 정도의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규모는 그가 이전에도 건의한 적이 있는 10개 사단 25만 명의 규모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그 이상의 한국군 증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또한 한국에서 공군은 별도로 유지될 필요 없이 근접 지원을 위해 육군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⁹⁾

1952년 3월 김볼(Dan Kimball) 미 해군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후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 밴 플리트 사령관도 10개 사단의 추가 증강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육군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때부터 미 육군부에서 한국군 증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지만, 전후 한국군 규모에 대해 미 극동사령부와 제8군사령부 사이에는 커다란 이견이 있었다. 밴 플리트 사령관은 한국군 10개 사단의 추가 증강을 선호했으나, 리지웨이는 약간의 증강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밴 플리트 사령관은 현재의 한국군 병력보다 몇 배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하여 한국군을 20개 사단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군의 유지비용이 미군보다 적으므로 인력은 물론 통신, 공병, 화학, 의무, 무기 등에서 4배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리지웨이는 인구 2,100만 명 규모의 나라에서 20개 사단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밴 플리트 사령관의 견해는 한국 상황만 고려한 것으로, 일본·대만·동남아시아 군사계획을 동아시아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²⁰⁾

1.16. 3/218: "The ROK Security Forces and Mobilization Potential", 26 Apr. 1951, 163/319: 『트루먼회고록』 하, 429-430면. 하지만, 한국정부는 미국측의 소극성이 증강된 한국군으로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군대를 이용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입병직이 이승만에게 1951.5.27, 『대한민국사자료집』 30, 278쪽).

16) 나중남, 『한국전쟁 중 한국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53』, 229-233면; 고지마 노보루, 『조선전쟁』, 331-332면; J. Lawton Collins, *War in Peacetime*, p. 316;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Washington, D.C., 1992, pp. 210-213.

17) "Gist of Talks between President Rhee and Mr. Cordier, Vice UN Secretary", 13 March 1952, 『대한민국사자료집』 31, p. 40.

18) 8086 Army Unit, MHD, Army Forces, FE, "Maintenance of Troop Strength in Korea", Jan. 1955, 군사편찬연구소 HD 1480, p. 57.

19) 『미 공군 준장 웨일랜드(O. P. Weyland)의 편지 1952.5.4, RG 341, 국립도서관;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채한국역), 『한국전쟁』 하, 217-218면;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 210-211.

20) Office of the Commander in Chief and Office the Chief of Staff, "Staff Section Report", April 1952, Bx 3/RG 407, NA; "Test and Evaluation of New Division Organization for the ROK Army, 13 April 1954, 군사편찬연구소, HD 1920;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채한국역), 『한국전쟁』 하, 222-223면.

3. 미국의 20개 사단 증강정책과 국군 증강

(1) 20개 사단 증강론

1952년 5월경 휴전협상이 지연되고 전선이 교착되면서 미국의 한국군 증강 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엔군의 병력을 대체할 국군 증강의 필요성과 휴전 후 한국정부가 휴전협정을 준수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20개 사단의 한국군 증강으로 한국의 안전보장을 해결하려 했다.

이미 1952년 3월 미 제8군 사령관 벤 플리트는 전후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군의 10개 사단 추가 증강을 지지한다는 입장으로 나아갔다. 그는 1951년 말 미 군사고문단에 한국군 증강안을 검토하도록 한 바 있으며, 한국군의 규모를 383,000명으로 상정해서 이듬해 3월 리지웨이 장군으로부터 약간 수정된 363,000명으로 승인받았다.²¹⁾

국무장관 애치슨은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국군 증강에 대해, 휴전협정의 지지를 대가로 요구한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한국군 증강은 국가안보회의에서 승인된 정책(NSC 118/2)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만큼 한국군이 자신들의 방어와 극동지역의 안보유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²⁾ 합동참모본부와 국가안보회의에서도 장래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떠맡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군 증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²³⁾

21) David Curtis Skaggs and Richard P. Weinert, "American Military Assistance to the ROKA 1951-65", 군사편찬연구소, MF 1429, p. II-3, 4.

22)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무장관의 메모 1952.4.30, FRUS 1952-54, pp. 185-186.

23) 「NSC 118/2에 대한 국무부 정책기획 참모의 토의 메모 1952.5.28, FRUS 1952-54, p. 263.

이러한 미국 내 분위기와 함께 유럽통합군사령관으로 떠난 리지웨이 후임으로 부임한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한국군의 확장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한국군을 최대한 증강시켜야 하며, 증강된 한국군이 전투력을 갖추면 그들을 전선에 배치시키기를 원했다.²⁴⁾ 그는 한국군이 확대되면 될수록 좋다(the bigger the Korean Army, the better he would like it)는 입장으로 휴전 후 미군과 유엔군 병력의 조기 축소를 위해서는 한국군의 증강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²⁵⁾ 1952년 6월 클라크 장군은 한국군의 전투력 보장을 위해 1952년 5월 1일 제출한 362,964명에서 2개 사단이 늘어난 415,046명을 육군부에 제안했다.²⁶⁾

미국이 한국군 증강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한 것은 지휘관의 전략적 인식의 차이 외에 참전한 중국군의 군사력이 증강된데 비해 미군 병력의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인됐다. 당시 유엔군 측의 병력 충원은 잘 되지 못했던 반면에 공산군 측의 병력증강을 살펴보면, 북한군이 1951년 7월 232,000명에서 1952년 7월까지 267,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중국군은 같은 기간에 277,000명에서 680,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1952년 5월 북한군은 전선에 9만 명, 후방에 178,000명, 중국군은 전선에 283,000명과 후방에 408,000명 게릴라 3,000명 등 모두 962,000명에 이르렀다. 10월초 새로운 정보 분석에 따르면 병력은 더욱 증강되어 북한군이 전선과 후방에 각각 54,000명과 234,000명, 중국군은 94,000명과 483,000명 배치되어 총병력이 1,049,000명에 이르렀다.²⁷⁾

24) 「극동군사령부에서 육군부로 1953.1.31, 2.7, 6/218.

25) 클라크가 한국군이 장차 한반도에서 미군이나 유엔군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공산군을 상대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시킬 것을 목표로 했다(나종남, 「한국전쟁 중 한국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53, 249면)는 지적은 더욱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6) 박일송, 「전쟁중 국군의 충원과 교육훈련,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47면: "CINCFE Tokyo to DA", 23 June 1952, HQ, FEC/UNC, "Command Report", June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172.

27) 「한표육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1952.5.26, 6.10, 7.3, 10.6, 군사편찬위원회: 「공산측의 능력 평가 1952.7.30, FRUS 1952-54, p. 438; 육본, 「적 전투력 종합평가서(1953.1.1-

이에 반해 미군은 1953년 2월부터 3월 중순경과 5월초부터 7월초까지 적의 공격을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1953년 2월 당시 한국에서의 미군 사병 부족은 21,000명이고 극동군사령부 수준에서는 31,000명이 부족한 숫자라는 할당된 병력보다 10%가 부족한 수치였다.²⁸⁾ 이처럼 적군 병력은 공군을 포함하여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는데, 미군 병력은 할당된 인원마저 채우지 못하자, 클라크는 유엔군의 병력증강 문제를 고려해야 했다.

더욱이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측과 휴전 회담이 논의되고 있던 1951년 6월 30일 휴전협상의 첫번째 조건으로 중국군의 완전한 철수를 내세우며 한국군 증강을 줄곧 요구했다. 1953년 5월 하순, 이승만 대통령은 브릭스(Ellis O. Briggs) 주한 미 대사와 면담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중국군의 철수이다(One thing we want is the withdrawal of the Chinese Communists). 한반도에 중국군이 주둔한다면 한국은 살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전후 중국군이 한국에 남아있을 경우 1950년 6월의 북한남침처럼 그들의 남침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에 대비한 한국군 증강의 절실함을 호소하였다.²⁹⁾ 또한 비용문제에 있어서 한국군의 경우 미군 유지비용보다 1/10밖에 들지 않는다는 인식도 그의 국군증강론을 뒷받침했다.³⁰⁾

클라크는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군의 확장을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국부군 2개 사단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미 국방부에서는 미국의 짐을 덜기 위한 대안으로 훈련이 되지 않는 국부군을 한국에 파병하기보다는 한국군의 병력을 증강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³¹⁾ 1952년 10월 백마고지 전투에서 중국군에게 타격을 준 국군 제9사단

의 승리는 그동안의 국군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³²⁾

때 마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군 증강에 적극적이었던 아이젠하워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국군 증강은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952년 12월 20일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는 내한하여, 중국본토로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회피하고 한국군의 증강과 지속적인 경제원조를 약속했다. 그 후에도 그는 미국이 한국군의 증강을 도와주어야 하고, 한국군은 자유세계의 안전을 위해 증강해야 한다고 말했다.³³⁾

1953년 2월 11일, 미 합참에서 장기적인 한국군 증강계획안을 윌슨(Charles E. Wilson)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그 내용은 육군 20개 사단 64만 명, 해병대 3만 명, 공군 1개 비행단(wing) 9,000명, 해군 1만 명으로 총 689,000명이었다. 이 때 한국군의 20개 사단은 미국의 지원 아래 한국의 인력과 경제적으로 최대한 지탱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라고 평가했다.³⁴⁾ 1953년 4월 22일, 미 국가안보회의에서 한국군 20개 사단은 상한선(ceiling)으로 카투사와 해병대를 제외하고 655,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방침을 정했다.³⁵⁾

31) 『트루만회고록』 하, 437면: “CINCFE Tokyo to DA”, 23 June 1952, 5/407, NA: 「극동군사령부에서 육군부로 1953.1.14, 6/218; HQ, FEC/UNC, “Command Report”, June 1952, SN 1172; James F. Schnabel·Robert J. Watson(채한국역), 『한국전쟁』 하, 261-267면; J. Lawton Collins, *War in Peacetime*, pp. 314, 317.

32) 박일송, 『전쟁중 국군의 충원과 교육훈련』, 48면.

33) 「임병직이 이승만에게 1953.2.2, 『대한민국사 자료집』 32, 9면: 나종남, 『한국전쟁 중 한국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53』, 256-257면: 자유당 정책위원회, 『정책 참고자료』, 1959.6, 193면.

34) 「극동군사령부에서 육군부로 1953.5.12, 7/218: “Report by the JSPC: Recommendation of the Korean Minister of Defense Concerning Expansion of the ROK Forces”, 12 Mar. 1954, RG 341, 국립도서관; James F. Schnabel·Robert J. Watson(채한국역), 『한국전쟁』 하, 341-342면; Kim Dong-Soo, “U.S.-South Korea Relations in 1953-1954: A Study of Patron Client State Relationship”, the Univ. of Connecticut, Ph.D., 1985, p. 46.

35) 「극동군사령부에서 육군부로 1953.4.22, 7/218; Kim Dong-Soo, “U.S.-South Korea Relations in 1953-1954: A Study of Patron Client State Relationship”, the Univ. of

31) 『한국전쟁 사료』 99, 177-178면, 215-216면. 1952년 9월경, 중국 본토에서도 중국군의 무기는 야포, 유탄포, 고사포 등을 비롯 10월에는 미그 15기가 도입되는 등 크게 강화되었다(『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398-399면).

28) 「극동군사령부에서 육군부로 1953.2.7, 6/218.

29) 「이승만 대통령이 임병직에게 1953.3.19, 『대한민국사 자료집』 32, 75면. 「유엔군사령부에서 육군부로 1953.5.26, 7/218.

30) 「이승만 대통령이 임병직 대사에게 1952.9.9, 『대한민국사 자료집』 31, 335-336면.

하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재정적자가 1952년에 40억 달러, 1953년 59억 달러, 1954년 99억 달러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미국경제에 주요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소련 침략을 대비해 병력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에 반대하면서, 과도한 상비군과 물자를 집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병력과 물자를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강조함으로써,³⁶⁾ 한국군 증강을 재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논란이 있었지만, 막바지에 이른 휴전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1953년 5월 결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군을 20개 사단, 655,000명 규모로 증강시키는 최종안을 승인했다.³⁷⁾

그런데 국군의 증강은 전후 중국과 북한의 재침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책으로 우방국의 공동노력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휴전협정의 조인과 함께 당일 워싱턴에서 16개 유엔참전국 대표는 “우리들은 국제연합의 원칙에 도전하는 무력정책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세계평화를 위하여 다시 단결하여 조속히 이에 대항할 것을 확인한다”고 선언했다.³⁸⁾ 1954년 3월 하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6개 참전국 공동정책선언’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장래 공산주의자의 도발에 대해 방책이 될 것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재확인했다.³⁹⁾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휴전협정 후 조인되었으므로 군 증강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한국정부가 이미 수차례 상호방위조약의 조기 체결을 요구했지만, 1953년 5월까지도 미국은 아직 한국과 동맹관계의 구축이나 한국안보의 단독보장 책임을 떠맡을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⁴⁰⁾

Connecticut, Ph.D., 1985, p. 47.

36) Kim Dong-Soo, “U.S.-South Korea Relations in 1953-1954: A Study of Patron Client State Relationship”, the Univ. of Connecticut, Ph.D., 1985, pp. 20-23.

37) 나중남, 『한국전쟁 중 한국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53』, 258-260면.

38) 『국방사』 2, 615면.

39) 『국무부에서 주한 미대사관에 1954.3.20. RG 341, 국립도서관.

이미 휴전회담이 제안될 무렵인 1951년 6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을 분할하는 평화안을 절대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문제를 해결 지으려면 반드시 한국민에 대한 공산침략이 장차 또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실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⁴¹⁾ 이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공산주의의 위협과 일본 팽창주의의 위협이라는 이중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국가적 생존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전으로 여겼다. 그는 휴전 후 미군의 개입을 통해 한국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려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미국은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는 것을 고려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상호방위조약을 협상의 대상으로 간주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1951년 8월, 변영태 외무부 장관은 “미국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더불어 삼국 상호방위동맹(ANZUS)을 결성하고, 필리핀과도 동맹을 결성하며, 일본과도 같은 동맹을 결성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수난기에 있어 이런 지역적 안보조치를 가장 아쉬워하는 한국과는 그런 동맹을 결성할 의사가 별로 없는 듯한데, 어찌하여 한국은 이런 동맹의 혜택에서도 제외되는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촉구하였다.⁴²⁾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휴전 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조인되었지만, 국군의 20개 사단 증강 방안은 이미 1952년 5월경 미국 정부 내에서 대체로 합의되었다.

(2) 20개 사단 증강이행과 예비 사단 창설

휴전 후 국군은 휴전협정 체결 무렵 서둘러 창설된 4개 사단을 보충하였고, 미군과 기타 유엔군의 철수를 계기로 추가로 예비사단을 창설하였다.

40) 온창일, 『휴전을 둘러싼 한미관계』, 김철범편, 『한국전쟁』, 평민사, 1989, 122면.

41) 양대현, 『역사의 증언』, 형설출판사, 1993, 62-64면.

42) 변영태, 『나의 조국』, 자유출판사, 1956, 236-237면.

미 육군부에서는 한국군의 증강이 휴전협상에서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하여 협정이 조인되기 전에 최소한의 기간요원으로 4개 사단의 창설을 바랐다. 이에 대해 클라크 사령관은 이를 48시간 이내 수행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4개 사단을 창설하려면 한국군의 많은 장교들이 개입하게 되면서 곧 다른 한국 관리들에게 알려져서 비밀리에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토론했다. 휴전을 추진하면서 한국군의 증강을 서두르는 것은 유엔군측의 이중성을 드러내서 휴전협정의 조인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편성되지 못한 한국군 4개 사단은 휴전 전에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휴전협정안에 따르면, 휴전 후에도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병력이나 장비 증원의 경우만이 규제되는 것이므로 한국 내에서 군병력 규모를 늘리기 위해 징병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또한 4개 사단 증편에 필요한 장비는 휴전 후에 미군병력 재배치에 따라 이관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⁴³⁾

<표 1> 10개 사단 증편 과정⁴⁴⁾

부 대	창설일	창설 근거	규 모
제12사단	1952.11. 8.	국일명(육)	15,282
제15사단	1952.11. 8.	제207호	15,120
제20사단	1953. 2. 9.	국일명(육)	15,060
제21사단	1953. 2. 9.	제39호	15,025
제22사단	1953. 4.21.	국일명(육)	15,053
제25사단	1953. 4.21.	제107호	15,739
제26사단	1953. 6.18.	국일명(육)	15,088
제27사단	1953. 6.18.	제202호	14,742
제28사단	1953.11.18.	국일명(육)	14,926
제29사단	1953.11.18.	제431호	12,406

43) 「극동군사령부에서 육군부로 1953.7.21, 23, 8/218.

44) 『국방사』 2, 337면: "Test and Evaluation of New Division Organization for the ROK Army", 13 April 1954, 군사편찬연구소, HD 1920.

결국 <표 1>에 정리된 것처럼 한·미간에 약정한 대로 20개 사단을 채우기 위해 휴전 직전에 2개 사단이 창설되었고, 나머지 2개 사단은 휴전 후에 이루어졌다.⁴⁵⁾ 1953년 9개월 동안 144,146명이 늘어났으므로 매달 16,000여 명이 증강된 셈이었다. 이에 따라 휴전 후 국군 증강은 휴전협정 체결 전에 서둘러 창설된 각 사단에 대한 보충작업으로 이루어졌다. 1953년 9월에도 제26사단은 편성 중이었고, 제27, 28, 29사단은 훈련 혹은 기간요원만 있는 수준이었다. 이 후 1954년 5월초까지 제29사단을 제외하고는 완전체제를 갖추었다.⁴⁶⁾ 그 결과 1954년 6월 국군의 규모는 육군 645,300명, 해군 14,183명, 해병대 25,136명, 공군 13,163명 등 총 697,782명에 이르렀다.⁴⁷⁾

이 외에 한국정부는 미군을 비롯해 유엔군의 철수에 따른 한국 내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국군 병력을 배가하려고 하였다. 미국정부는 휴전 후 국군의 증강을 통해 그만큼 미군을 철수시키려 했다. 미 공군 장관 핀레터(Thomas K. Finletter)와 육군장관 페이스(Frank Pace, Jr.)는 휴전 후 한국에 대규모의 미 육·해·공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핀레터 장관은 미 공군이 다른 지역에 주둔해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⁴⁸⁾ 미 군부에서는 한국에 2개 사단 규모를 남기고 모두 철수할 예정이었다. 또한 다른 유엔참전국의 소수 병력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보다 전쟁이 재발하면 '대제재선언'에 따라 신속히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⁴⁹⁾ 이형근의 진술에 의하

45) 정일권, 『정일권회고록』, 고려서적, 1996, 436면.

46) "Wartime and Peacetime ROKA Programs", 14 Sep. 1953, SN 1228.US MAG to ROK, "K MAG Statistical Summary", 30 Sep.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845, pp. 25-26.

47) "Actual and Projected Strengths, ROK Forces", 1954, 11/330.

48) 「메모: 한국관련 토의 Nov. 3, 1952, FRUS 1952-1954, Vol. XV Korea, pp. 574-5754.

49) "Memo for the Secretary of Defense: Deployments and Strength of US/UN Forces in the Far East", 5 May 1955, RG 341, 국립도서관: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서울대출판부, 2000, 556면.

면 한국정부에서도 휴전 전에 이미 미 국방부가 대한군사원조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미군 2개 보병사단과 공군 1개 여단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수하는 대신, 한국에 예비사단 10개를 증설하고 공군과 해군을 약간 증강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⁵⁰⁾

이러한 방침에 따라 유엔군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1953년 10월 프랑스 대대의 철수를 시작으로 11월 남아공화국연방, 이듬해 10월 콜롬비아, 12월 네덜란드·벨기에, 1955년에는 그리스군 등이 철수했다. 전쟁 시기 한 때 32만 명에 이르렀던 미군은 1954년 초부터 1955년 중반까지 한국에 제2사단과 제7사단의 2개 사단과 공군 1개 사단 등 약 6만 명을⁵¹⁾ 남기고 6개 사단을 철수시켰다.

이러한 유엔군의 철수조치에 따라 1954년 1월 22일, 한국 국방장관은 미 합참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15~20개 사단의 추가 증편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3월 11일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군철수가 남한의 방위수준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북한의 재침략 의도를 자극할 것이므로 남한의 병력을 35~40개 사단으로 증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⁵²⁾ 이어서 1954년 7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은 미 의회연설에서 공산측의 적화전략에 맞서 20개 사단을 더 편성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연설하면서 병력증강을 촉구하였다.⁵³⁾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승만 대통령은 이형근 합참의장을 경무대로 불러 워싱턴으로 가서 20개 현역사단을 더 증강시킬 것을 요구하라고

50) 이형근, 『군번 1번의 외길인생』, 113면.

51) 와다 하루끼(서동만·남기정역), 『북조선』, 돌베개, 199, 201면.

52) 『서울 주한 미 대사가 국무장관에게 1954.3.16, RG 341, 국립도서관: 홍용표, 『국가안보와 정권안보』, 246면; 서주석, 『한미연합사의 창설과 발전』, 『군사논단』 14/15, 1998년 봄/여름호, 82면; "Report by the JSPC: Recommendation of the Korean Minister of Defense Concerning Expansion of the ROK Forces", 12 Mar. 1954, RG 341, 국립도서관.

53) 한표옥, 『한미외교요람기』, 중앙일보사, 1984, 258면.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이형근 합참의장은 현실적으로 20개 사단의 유지조차도 우리 국민에게 무거운 부담인데, 이에 추가로 20개 사단을 증강한다는 것은 무지몽매하다고 인식하였다.⁵⁴⁾

한국정부의 추가적인 증강요구는 거절되었다. 미 합참과 국방장관은 한국군은 20개 사단 이상으로 늘어나서는 안되고 각군 병력의 상한선 내에서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 미 합참은 비상시를 대비해 정규병력을 증강할 수 있는 예비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954년 3월 하순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주장의 무모함을 설득하면서 예비군 창설에 대해 언급했다.⁵⁵⁾

이 계획은 이승만 방미 이후 더욱 구체화되어 1954년 11월 17일 한미의사록에서 20개 사단을 기본으로 72만 명(육군 661,000명, 해군 15,000명, 해병대 27,000명, 공군 16,500명)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10개 예비사단을 창설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⁵⁶⁾ 10개 예비사단 중 3개 사단을 우선 창설하는 계획이 미국과 합의되어 1955년 7월 2일, 제39사단과 50사단이 창설되었다.⁵⁷⁾ 또한 이 때 미 지상군의 철수를 보완하기 위해 미 제8군사령부가 일본의 자마(座間)캠프로부터 서울로 복귀했으며, 1957년 7월 유엔군사령부 역시 서울로 이전해 왔다.⁵⁸⁾

이러한 양적 팽창 외에 일부 질적 발전의 모색이 이루어졌다. 1953년 10월 7일과 21일, 한국 국방장관은 미 국방장관에게 한국 육군에 기갑 및 포병부대, 1개 공정연대, 한국 6 DD, 16 DE, 4 AM, 공군 5개 전투비행단, 2

54) 이형근, 『군번 1번의 외길인생』, 110-111면.

55) 『국무부에서 주한 미대사관에 1954.3.20, RG 341, 국립도서관: "Memo: Augmentation of ROK Armed Forces", 23 Mar. 25, 1954, RG 341, 국립도서관.

56) 신용옥, 『국방비 분석으로 본 대충자금 및 미국 대한원조의 성격』, 247면; 『국방사』 2, 330면.

57) 『동아일보』 1955.7.7. 정일권 총참모장은 1955년 6월 8개 사단이 창설되었다고 말했다 ("Memo of Conversation: Security of ROK", 18 June, RG 59, 국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사령부, 『한국 휴전후의 방위책임인수과정』, 1968.9.29.

58) 정일권, 『정일권회고록』, 고려서적, 1996, 435면.

개 경폭격비행단, 1개 정찰비행단, 수송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다.⁵⁹⁾ 이 무렵 한국정부는 전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열린 1954년 제네바정치 회의에 참석하는 대가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국군의 현대화에 대한 지원 약속을 받았다.⁶⁰⁾ 1954년 4월 16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육군의 야전군으로 전투능력 향상, 2척의 호위함 (destroyer escorts) 지원, 소규모 부대로 산재해 있는 해병대 여단을 사단으로 확대, 제트기 지원과 조종사의 제트기 훈련 지원 등을 약속했다.⁶¹⁾ 이후에도 한국정부의 해·공군의 증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났다.

4. 국군 증강의 특징과 한계

(1) 군 증강과 규모의 적정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기간과 휴전 후 한국군은 단기간에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했다. 이러한 양적 팽창에 대해 장택상은 국군의 장비가 현대화되는 거리가 멀다하더라도 병력 수만큼은 6·25전쟁 발발 당시보다 10배 이상이 넘는다고 자부했으며,⁶²⁾ 미 합참의장 역시 한국군을 극동에서 주요한 전략적 재산(strategic asset)이라고 평가했다.⁶³⁾

59) "Report by the JSPC: Recommendation of the Korean Minister of Defense Concerning Expansion of the ROK Forces", 12 Mar. 1954, RG 341, 국립도서관.

60) 자유당 정책위원회, 『정책 참고자료』, 206-207면; *FRUS*, Vol. XV, Korea, 1372면.

61) "Report of the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26 Apr.-7 Aug. 1954, pp. 1-4, 국립도서관.

62) 조봉암 외, 『한국전쟁은 재발할 것인가?』, 정태영·오유석·권대복편, 『죽산 조봉암 전집』 1, 세명서관, 1999, 375-376면.

63) "Memo for the Secretary of Defense: Deployments and Strength of US/UN Forces in the Far East", 5 May 1955, RG 341, 국립도서관.

그러나 휴전 후 한국군의 양적 규모는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미군이 약 20개 사단의 한국군을 유지하려는 것은 전시하의 전략개념으로, 미 합참에서 종전 후 한국군을 10개 사단 25만 명 규모로 하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었다.⁶⁴⁾ 유엔군사령부 정보참모부(G-2)에서도 한국의 육군 규모는 결국 25만 명 수준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보았다.⁶⁵⁾ 휴전 무렵 한국의 육군 인사참모부(G-1)에서 평시 현역 장교 복무대상을 선정하는 연구를 진행했을 때, 병력규모를 10개 사단 254,000명을 기초로 했다.⁶⁶⁾ 이승만 대통령도 전후 한국군의 유지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을 직접 치룬 한국과 여건이 다르지만, 1953년 8월 미국 통합전략기획위원회(JSPC)에서 일본 자위대의 규모를 15개 사단 34만 8천명 수준으로 1956년까지 달성할 것을 공식정책으로 확정했을 때, 일본의 요시다 정권은 국내 여론의 반대, 재정기반의 취약화 등을 이유로 10개 사단 18만 명 수준 이상의 군비증강은 불가능하다며 완강히 반대했다. 결국 아이젠하워 정부는 일본의 대규모 군비 확장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그 정치 경제적 안정을 저해하면서까지 군사력 증강의 압력을 가하지 말 것"을 정책문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⁶⁷⁾ 이에 대해 이케다 전 수상은 "안보조약으로 전후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지켰다"면서, "일본은 비생산적인 군사지출을 최소한도로 하고 오로지 경제발전에 힘쓸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⁶⁸⁾

한반도는 중국과 연이은 지정학적 위치나 당시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한 사실 자체로 이미 동아시아에서 보다 큰 위협 원인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군이 북한에서 철수 여부를 막론하고 한반도 안보에

64) 「유엔군사령관 클라크가 국방부 부차관에게 1953.7.3, *FRUS* 1952-54.

65) "Organization for Military Forces", 27 Oct.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232.

66) EUSAK, "Command Report", Aug. 1953, Bx 1479/ RG 319, p. 30.

67) 이종원, 「6·25전쟁과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의 변천」, 유영익·이채진편, 『한국과 6·25전쟁』, pp. 315-316.

68) 林茂·辻清明편, 『日本内閣史録』 6, 동경: 제일법규출판주식회사, 1981, 9면.

위협적인 존재로서 적대적 행위를 할 때, 한국은 독자적으로 대응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일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1952년 11월 2일, 한국전 중군기자들은 약 2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남한이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하고 또 소련으로부터 비행기, 장비, 기술자 내지는 조종사까지 원조를 받고 있는 약 4억 인구의 대륙에 대항하여 155마일 전선에 전투원을 배치할 군사적 능력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⁶⁹⁾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특히 중국군의 위협에 대응하여 전후 안정보장책으로 국군증강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이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다시 일으키면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여론도 남한이 전쟁을 재개한다면 미국개입을 반대했으나, 공산측이 휴전을 파기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면 다시 미군의 군사적 개입을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⁷⁰⁾

북한에 중국군이 주둔하든 안하든 그들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대비한다면, 남북한 전체 병력을 비교할 때 북한군에 대해서 국군이 우위에 있었다.⁷¹⁾ 전투병력을 기준으로 1951년 7월 미군 136,000명, 미군 외 기타 유엔군 29,400명, 국군 128,900 등 총 294,900명인데 비해 공산측은 중국군 248,100명, 북한군 179,400명 등 총 427,500명으로 1 : 1.4로 약간 우위를 차지했다. 1953년 7월 기준으로 아군 410,200명(국군 224,800명)과 공산군 743,600명(북한군 178,100명)으로 1 : 1.8로 그 차이가 늘어났다. 그러나 <표 2>에서처럼 국군과 북한군만 비교하면 국군이 우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⁷²⁾

69) 김팔봉, 『아이크의 방한과 금후전망』, 『신태양』, 1953. 1. 32면.

70) "Current Popular Attitude", 13 Nov. 1953, Bx 39/RG 59 General Records of the DS Office of Public Opinion Studies 1943-1965.

71)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 2, HQ EUSAK, "Comparison of Korean Armies", Nov.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231.

72) "Tactical Strength", July 1951-July 1953, EUSAK, "Command Report", Aug. 1953, Bx 1479/RG 319, p. 30.

<표 2> 남북한 군사력 비교⁷³⁾

	전투병력		근무지원병력		행정 및 기타		총 계	
	1953. 9	1954.중반 (예정)	1953. 9	1954. 중반	1953. 9	1954. 중반	1953. 9	1954. 중반
국 군	249,314	318,795	80,006	135,830	259,246	199,575	588,566	654,200
북한군	224,300	275,631	47,650	65,000			271,950	340,631

전후 북한군도 군비증강을 했지만, 1954년 4월 국군 651,000명에 비교할 때, 중국군 701,000명을 제외하면 북한군은 34만 명 수준이었다. 1956년 7월 국방장관은 북한군의 군사력이 육군 411,900명, 공군 26,510명, 중국군 488,100명 등 928,100명으로 비약적으로 증강했다고 하면서 국군 증강이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⁷⁴⁾ 하지만 1955년 6월 정일권 총참모장이 북한군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다만 중국군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표현에서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알 수 있었다.⁷⁵⁾ 이러한 요소로 인해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에서는 1954년부터 1959년까지 전망하면서 한국측의 우발적인 무력사용을 우려했다.⁷⁶⁾

중국과 소련 등이 연결된 북한과 대결하려면 유엔의 대체재선언, 한미상호방위조약, 필리핀, 타이, 대만과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와의 집단안보 체제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존재를 활용한다면, 국군의 규모를 조정하여 질적 발전을

73) Office of Assistant Chief of Staff, G2, HQ Eighth US Army, "Comparison of Relative Military Strength and Capabilities, ROK and North Korea", 18 Nov. 1953, 군사편찬연구소, SN 1231.

74) 『동아일보』 1956.6.5, 7.27.

75) 『한국전쟁은 재발할 것인가?』, 『진상』, 신문외신문사, 1957. 6. 정태영 외편, 『죽산 조봉암 전집』 1, 376면; 이한림, 『세기의 격랑』, 팔복원, 1994, 285면; "Memo of Conversation: Security of ROK", 18 June 1955, RG 59, 군사편찬위원회.

76) "Projection of Far East Policy Problem, 1954-1959", 『한국전쟁총서 5-미 국무부정책 기획서문서』, pp. 711-712.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군 구조와 비용의 한계

1950년 미군의 경우 육군이 63만 명이고, 해군 459,030명, 공군은 416,000명으로 3군이 균형적으로 발달한 모습이었다.⁷⁷⁾ 이러한 구조에 장비의 우수한 성능을 배경으로 전쟁 중 유엔군 측은 해상과 공중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 해·공군의 우위가 한국군의 균형적 증강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육군총참모장 이종찬 소장은 국군이 국가 경제상으로 양보다 질에 치중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으나,⁷⁸⁾ 휴전을 전후한 짧은 기간에 국군의 증강이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더욱이 증강 비용을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한 까닭에 자주적이고 계획적인 증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1951년 1월 하순, 육군 185,000명, 해군 7,500명, 해병대 5,600명, 공군 2,500명으로 한국 공군은 전쟁 발발 당시보다 3배로 늘어났으나, 수적으로나 장비면에서 군사력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평가될 정도였다.⁷⁹⁾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군 증강과정에서 한국 공군 총참모장은 공군증강을 위해 1952년 2월부터 1955년까지 전체 군사예산의 1/3를 요구했다. 이 무렵 미국 합동전략계획위원회에서는 전후 한국군에 공군과 마찬가지로 해군, 해병대가 필요하다고 합참에 권고했으나, 극동군사령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리지웨이 사령관을 비롯해 극동군사령부에서는 한국 공군이 1955년까지 300대의 공군기를 보유하려면 한국의 경제로 지탱할 수도 없고 더

77) 서용선,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 정치학박사 학위논문, 1999, 106면.

78) 「대구매일신문」 1951.10.16.

79) 「동아일보」 1951.1.29: "Memo: Military Capabilities of the ROK", 9 Mar. 1951, BX 164/RG 319 Army Intelligence Project Decimal File, 1951-1952.

육이 미국경제에 의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참의 계획안인 해병대나 공군규모의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특히 공군 증강은 공산측과 균형(complete parity)을 이루지 않고는 적의 재침에 대한 억제력이 되지 못하므로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낭비라고 파악했다. 북한 공군의 경우, 국경 넘어 만주지역 등지에서 훈련할 수 있는 등 언제라도 남한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극동군사령부의 공군을 증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⁸⁰⁾

1953년 6월 22일 이승만은 클라크 사령관과 회의에서 육군처럼 군 증강에 해군과 공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⁸¹⁾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조병옥도 6·25전쟁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미국정부와 절충하여 한국군의 장비를 현대화하고 균형있는 육·해·공군을 편성하여 정병주의를 실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⁸²⁾ 그러나 미국의 20개 사단 증강정책 이후에도 지상군 중심 정책은 계속되었다. 미 공군 장관 핀레터와 육군 장관 페이스는 한국의 경제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적자에 허덕일 것이므로 공군 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⁸³⁾ 전망했는데 이렇듯 한국은 육군 중심의 불균형 구조를 오랫동안 지니게 되었다.

1953년 10월 육군은 609,000명인데 비해 공군 11,000명, 해군(해병대 포함) 26,000명으로서 전쟁 전 국방부에서 육군 10만 명과 예비군 5만 명으로, 해군 1만 명과 공군 5,000명으로 계상했으므로⁸⁴⁾ 육군이 6배 가량 크

80) HQ, FEC/UNC, "Command Report", March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172: Joint Strategic Plans Committee, "Post Settlement Withdrawal of UN Forces from Korea", 6 June 1952, RG 341, 국립도서관.

81) 「미 제8군사령부에서 육군부로」 1953.6.22, 8/218.

82) 조봉암 의, 「한국전쟁은 재발할 것인가?」, 정태영·오유석·권대복편, 『죽산 조봉암 전집』 1, 375-376면.

83) 「메모: 한국관련 토의」 1952.11.3, 1952, FRUS 1952-1954, Vol. XV Korea, pp. 574-5754.

84)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Government of ROK, "Informal Report on Status of National Forces of ROK", 7 Feb. 1949, 78/335.

게 늘어난 점에 비추어 해공군은 거의 늘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⁸⁵⁾ 1954년 중반 벤 플리트 장군 일행은 한국의 해군과 공군이 상징적 수준(only token value)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국군의 증강이 육군 위주로 확대되었다.⁸⁶⁾

이러한 군 불균형에 대해 1953년 12월 국방장관은 1개 전투비행단을 5개 전투비행단, 2개 경폭격기비행단, 1개 정찰비행단, 1개 수송대대 등으로 확대시켜 줄 것을 건의했고, 이듬해 1월 초 최용덕 공군 참모장은 트와이닝(Nathan F. Twining) 미 공군 참모총장에게 지상군 지원과 제트항공기로 무장한 북한공군에 맞설 수 있는 공군증강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의 항공방어를 위해 점차 미 공군으로부터 인계받기를 피력했다. 그러나 미 합참은 경제적 부담,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미 공군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국공군의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⁸⁷⁾ 이 때문에 1954년 5월, 국군에 연합참모본부가 창설되었지만, 미군측에서는 합참 의장을 순번제로 순환을 시키면 공군과 해군시기에 원활한 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미군과 영국군처럼 합동참모본부 체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⁸⁸⁾

1955년 9월 22일, 연합참모본부에서는 해병대사령관까지 참석하여 '3군 균등' 증강문제를 토의하면서 당시의 불균형한 3군 장비상태를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했다.⁸⁹⁾ 이어서 1956년 1월 23일, 연합참모본부 이형근 대장 등 3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의 공동 명의로, 국군을 북한군과 동

85) 김팔봉, 『아이크의 방한과 금후전망』, 『신태양』 1953. 1. 32면.

86) "US Position in the Far East: An Appreciation", "Preliminary Report of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3 June 1954, 군사편찬연구소, SN 1919.

87) "Expansion of ROK Air Force", 21 Jan. 1954, RG 341, 국립도서관: "Memo for Chief of Staff, USAF: Augmentation of ROK Armed Forces", 23 Mar. 1954, 같은 문서군.

88) "Organization for Military Forces", 27 Oct. 1953, 군편, SN 1232.

89) 『동아일보』 1955.9.23.

등하게 즉시 증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북한해군은 100척 이상이고 공군기는 600대 중 400대가 제트기이며, 일본 해·공군도 한국의 경우보다 강대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군의 증강은 곧 유엔군의 증강과 극동의 안전을 의미"한다며 해·공군의 증강을 요구했다.⁹⁰⁾ 이처럼 육군 중심의 군 증강으로 인해 이후 육군과 해·공군의 균형이 군 발전 방향의 중심 과제가 되었다.

한편 한국군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를 방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려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군대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방부에서도 현대전이 무력전일 뿐만 아니라 생산력 전쟁이라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⁹¹⁾ 사실 1952년 4월 중순 변영태 외무부 장관이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문제라고 말한 데서⁹²⁾ 알 수 있듯이 한국 관리들은 한국군 증강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군 증강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제공하는 대신에 미군으로부터 비용지원을 받으려고 계획했다. 영국 외무부는 "큰 규모의 상비군을 유지하고 필수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또한 한국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외국 원조의 지속적인 유입이 필요하다"는 평가처럼, 이는 당시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⁹³⁾

1952년 11월 중순, 신태영 국방장관은 증강된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한국정부가 이를 전혀 감당할 수 없으므로(completely unable to bear) 군사원조를 확대해 줄 것을 유엔군사령부에 요구했다.⁹⁴⁾ 이는 더 많은 군사원조를 받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90) 『동아일보』 1956.1.24.

91) 국방부, 『국내군수지원 능력 현황』, 1952.

92) 『주한 미 대사관에서 국무부로』 1952.4.12, 4/218; 『유엔군사령부에서 육군부로』 1953. 1.29, 6/218.

93) 라종일, 『끝나지 않은 전쟁』, 전예원, 1994, 131면.

94) 『유엔군사령부에서 육군부로』 1952.11.19, 6/218.

1952년 10월 한국경제는 격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절망적 상황(in desperate straits)에 있었다. 1950년 6월에 비해 소비자 가격은 19배 올랐고, 도매가격은 15배, 쌀 소매가격(20리터)은 22배나 상승했다.⁹⁵⁾ 군 증강으로 군사비가 1960년대 중반까지 정부재정 규모의 절반을 넘었으며, 특히 미국의 직접 지원 비중이 군사비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상황이었다.⁹⁶⁾

이승만은 변영태 외무장관이 장래 한국군의 유지문제로 한국군 증강문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면 미국 원조를 받는 일이 그르치게 된다면 양유찬 주미대사에게 그런 반대 의견을 내는 일이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쟁이 끝나면, 상비군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외시키면 미국과 유엔군은 그 비용을 기꺼이 부담할 것이라고⁹⁷⁾ 낙관하면서 군을 축소하지 않았다.⁹⁸⁾

20개 사단의 육군과 적절한 공군과 해군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경제력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1954년 예산 규모는 10개 사단과 소규모의 공군과 해군력을 유지시킬 정도에 불과했다. 그 해 국방예산 가운데 원화 비중이 21%에 그치고, 79%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다. 1956년에는 22%와 78%로 여전히 군사원조의 의존비중이 높았다.⁹⁹⁾

결국 한·미 양국은 군비에 대한 재정의 과도한 부담 때문에 국군 병력 규모의 감축을 논하게 되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원조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보낸 타스카(H. J. Tasca) 특사는 1953년 6월 한국이 20개 사단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력 수준으로 보아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로서 20개 사단을 10개 사단으로 감축할 것을 건의했다.¹⁰⁰⁾

95) 「유엔군사령부에서 육군부로 1952.11.15, 6/218.

96) 화랑대연구소편, 『한국의 민군관계』, 육사, 1992, 38면.

97) 「이승만이 양유찬 대사에게 1952.10.15, 『대한민국사 자료집』 31, 393면.

98) 「주한 미 대사가 국무장관에게 1954.3.16, RG 341 국립도서관.

99) 자유당 정책위원회, 『정책 참고자료』, 220-221면; FRUS, Vol. XV, Korea, 1250면.

100) 신용욱, 「국방비 분석으로 본 대충자금 및 미국 대한원조의 성격」, 246면.

5. 맺 음 말

전쟁은 남북한의 군대를 크게 증강시켰다. 전후 국군은 전쟁 발발 당시 8개 사단에서 20개 사단과 10개 예비사단 규모로 늘어났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후에도, 한국정부는 미군철수를 이유로 35~40개 사단까지 증강을 요구했다. 그 결과 과도한 상비군 중심의 군대로 확장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군의 증강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중국군의 개입과 주둔이었다. 중국군 개입 후 이승만은 물론 미국에서도 군 증강 논의가 이어져, 20개 사단 심지어 100만 명으로 증강시키자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후 이는 국군 증강론 규모의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그 규모를 과장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1952년 5월까지 미 군부에서는 10개 사단 증강론이 주도적인 입장이었다. 전쟁 초기에는 미군 주도로 전쟁의 종결을 추구했기 때문에 한국군 증강에 소극적이었으나, 10개 사단 증강론은 이미 휴전협상을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주장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맥아더나 리지웨이가 주장한 것으로 공산주의자의 재침략이 있을 경우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어가 아니라, 미군과 다른 우방국가의 지원이 도착할 때까지 지연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셋째, 미국의 국군 20개 사단 증강정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구체화되기 이전인 1952년 5월경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한국과 미국정부는 국군 증강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효과와 서로 연관시키지 못했다. 이미 유엔군과 중국이 참전하여 전쟁을 치른 한반도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아래 미군이 주둔한 상황에서 공산주의자에 의한 전쟁이 재발하면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지역안보체제와 유엔 등을 활

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지도자들은 국군 증강과정에서 육군처럼 해군과 공군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미 1952년 2월 한국 공군 참모장은 공군증강을 위해 1955년까지 전체 군사예산의 1/3을 요구했지만,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감당하기 어렵다는 미국의 방침 아래 군 증강이 지상군 위주로 이루어져 군 구조에서 해·공군의 병력과 장비는 낮은 수준에 그치게 되었다. 더욱이 전후에는 군 증강 비용을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였으므로, 공군과 해군의 증강이 어려웠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군의 증강은 휴전을 전후로 미국의 계획에 따라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미군 주둔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전쟁의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으므로 현역 병력을 10개 사단 25만 명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예비군 체제로 운용했다면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1960년대 중반에 미국은 미군원과 한국의 경제력으로는 60만 명 수준을 유지하기 곤란하므로 국군의 규모를 50만 명 수준으로 줄여 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고 하였다.¹⁰¹⁾ 그러나 한번 증강된 군대를 줄이는 일이 쉽지 않아 현재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원고투고일 : 2008. 3. 11, 심사수정일 : 2008. 6. 9, 게재확정일 : 2008. 6. 16)

주제어 : 한미상호방위조약, 10개 사단 증강론, 20개 사단 증편, 중국군 복한 주둔, 이승만, 밴플리트, 휴전협상, 규모의 적정성, 군 구조, 군사비

101) Office of the Country Director for Korea, Bureau of Far Eastern Affairs, "Guide Lines for U.S. Policy and Operations in Korea", 3/59 Records Relating to Korea, 1952-1966, 군사편찬연구소, SN 2111.

<ABSTRACT>

The USA's Buildup Policies of the ROK Armed Forces in the Korean War and its Characteristics

Lee, Mi-suk

This study examines critically the process by which the Republic of Korea (ROK) Armed Forces, which had 100,000 personnel prior to the Korean War, grew to the size of 600,000 strong at the cease-fire. What should be the appropriate size of the ROK Armed Forces today? This study returns to the years before and following the cease-fire, when the armed forces began to expand, to find the historical background to the propriety of that size. Notable in particular is the aspect of excessive military buildup, which may have happened because *Syngman Rhee's* hard line unification policy and the US military policies were not well coordinated but rather as situations arose.

The US buildup plans for the ROK Armed Forces of ten divisions, which it maintained until May 1952, was reasonable. Worthy of special attention is that the 10-division plan was being maintained one year into the cease-fire negotiation. This backs up Douglas MacArthur and Matthew Ridgway's view on the correct dimension of the buildup plan. But the USA changed its policies and augmented the Korean military to 20 divisions surrounding the cease-fire,

While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was signed after the cease-fire, it failed to affect the building plan for the armed forces. The twenty-division plan was already confirmed in February 1953, well before

the Mutual Defense Treaty took shape. The buildup achieved despite the signing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was the combined result of Rhee's concerns over the US Forces withdrawal, his northward strategy, and US Forces's burden-transferring policies.

The excessive size of the ROK Armed Forces, achieved in disregard of the US Forces presence and the Mutual Defense Treaty, became a stumbling block in the ROK's economic development. Had we trusted more the war-preventing capability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and the US Forces, and limited our active strength to 250,000, the national would have been free from considerable economic strains. In mid-1960s the US judged that US aids and ROK's economy were in difficulty maintaining a 600,000 active force, attempting to reduce it to 500,000 men and diverting the free resource to more economic aid. But an army once built up is not easily downsized, and the matter remains to this day to be solved.

Key Words : The US Buildup Plans for the ROK Armed Forces,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the 10-division Augmentation Plan, the 20-division Augmentation, Syngman Rhee, James Van Fleet, Chinese Communist Forces stationed in the North Korea, Truce Talks, Propriety of Strength, Military Structure, Military Expenditure